



JUNI

Jeonju University Nursing Information



제 2021 - 1호

발행일 : 2021년 12월 20일

발행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효자동2가)

전주대학교 의과학 대학 간호학과

“따로 또 같이”

학과 소식

2021 전주대학교 간호학과 2학기 개강총회

일시 : 9월 2일

진행 : 마민우 부학회장

☞ 비대면 개강총회

2021년 9월 2일, 전주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은 코로나 여파로 인해 비대면 ‘개강총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강총회는 2021년 1학기를 마무리하고, 2학기 시작에 앞서 재학 중인 간호학과 학우분들을 상대로 진행했습니다. 개강총회는 간호학과 교수님, 조교님께서 2학기 안내 인사와 학생회에서 2학기의 주요 행사 일정을 소개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 ‘개강총회’는 부학회장 마민우 학생의 진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조혜경 학과장님의 인사말과 함께 2021년 교수진, 조교진, 학생회 및 1학기 성적 우수자 시상, 2학기 예정 행사 순서로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번 개강총회를 통해 간호학과 모든 학생들은 앞으로 남은 2학기의 주요 행사를 파악하게 되고, 각 학년 대표들이 학년을 대표해 간호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남겼습니다. 이번 행사는 비록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지만, 간호 학생들의 결속력이 돋보였고 화합하는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3, 4학년 선배들의 덕담과 조언을 통해 1, 2학년 후배들은 2학기를 맞이하기에 앞서 간호인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다짐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마민우 기자-

👉 제 8 회 간호학과 학술제

2021년 제8회 간호학과 학술제가 2021년 11월 15일부터 11월 26일까지 전주대학교 사이버 캠퍼스에서 비대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8회 간호학과 학술제는 간호학과 조혜경 학과장님의 개회 환영사를 시작으로 임상사례발표와 간호연구 발표로 나뉘어 시행되었습니다. 제 1부: 임상사례발표에는 간호학 실습을 수업 받은 3~4학년 선배들의 사례발표가 있었습니다. 백지연 선배의 「비효과적 뇌조직 관류의 위험 간호」, 박경선 선배의 「지식부족 대상자 간호」, 최일균 선배의 「경도정신지체 대상자의 무력감 간호」, 정다혜 선배의 「감염과 관련된 고체온」, 양예린 선배의 「간호단위 관리 및 간호사 업무」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 2부에서는 간호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는 1조(발표: 최서영)-핵심기본간호술 수행빈도와 전공만족도의 연관성, 2조(발표: 백은비)-온라인 가상 시뮬레이션 교육에 대한 간호 학생의 임상추론역량 및 임상수행능력, 3조(발표: 권지은)-남자 대학생의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관한 지식, 백신 접종 의향과 접종 저해 요인, 4조(발표: 김해인)-간호대학생의 IPIP성격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과 임상실습 만족도의 상관관계, 5조(발표: 이하림)-간호대학생과 타과 대학생의 사전 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 및 태도, 6조(발표: 김하림)-간호대학생의 수면의 질과 정신건강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주대학교 간호학과 학술제란 간호학과에서 수학하며 익히고 얻은 지식을 학문적 결과로 승화시키는 행사입니다. 제8회 학술제는 허명륜 교수님의 지도하에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학술제 이후 심사를 거쳐 수상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사례발표의 경우 다양한 주제를 문헌 고찰, 간호사정, 간호 진단, 간호 과정이라는 체계적인 순서를 통해 세세하게 들을 수 있는 발표였고 1.2학년들에게는 무척 흥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실습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보다는 한 번

참여해보고 싶다는 마음도 갖게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간호연구 발표를 보며 저희들이 배운 지식들이 연구를 통해 완성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열심히 발표해주신 선배님들과 듣는 학우분들 모두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제8회 간호학과 학술제였습니다.

-마민우 기자-

👉 비대면 폭력 예방교실

비대면 폭력예방교육이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공공기관의 성희롱 방지조치와 기관별 평가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교육목표**로는 성(性)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 성(性)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방지 및 인권보호, 가정폭력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가정폭력 방지 및 인권보호, 폭력예방교육 의식 제고와 자율적 추진의지 강화 등을 제 1의 목표로 삼는 건설적인 교육시스템입니다.

비대면 폭력예방교육의 교육대상은 다양한 교육 법률에 의해 설립된 각급의 학교들의 학생입니다.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과 같은 유치원과 어린이집부터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각종학교(외국인학교, 대안학교)와 같은 초, 중, 고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 기술대학각종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경찰대학, 국방대학교와 같은 대학교입니다. 또한 간호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와 같은 각종 사관학교에 소속된 자들 모두 교육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비대면 폭력예방교육에는 크게 두 가지 교육내용이 있는데 첫번째는 성폭력 관련 예방교육입니다. 성희롱과 같은 경우에는 성희롱 예방법령에 근거하여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조치기준 등에 따라서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

충 상담 및 구제 절차 등을 도와줍니다. 뿐만 아니라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해줍니다. **성매매와 성폭력과 같은 경우에는** 성평등 관점에 따른 건전한 성 의식 및 성문화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을 하고, 성매매, 성폭력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예방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교육하고 지원합니다.

두번째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 구성원 관계의 유지 및 발전에 관한 사항, 성인지 관점에서의 가정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가정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교육하고 교육대상자가 아동인 경우 가정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하게 할 교육내용 포함하는 교육사업입니다.

2021년도 성폭력예방교육은 비록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아쉬움이 남지만 학생들에게 꼭 필요하고 유익한 교육이었습니다. 강의 속 내용을 잘 숙지하여 우리 전주대학교 학생들이 모두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서재현, 김규리 기자-

리더십 특강

<마음사랑병원 신정은 부장 특강>

2021년 11월 29일, '정신과 간호사의 보람과 비전'에 대해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신정은 간호팀장님의 특강이 진행됐습니

다.

정신과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돌봄에 관한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정신과 간호사는 첫째로 돌봄과 보살핌의 속성을 띠고 있어야 합니다. 돌봄과 보살핌의 속성으로는 대표적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긍휼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능력,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다양한 정신과 환자들을 간호하기 위해서는 윤리에 입각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환자들에게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정신과 간호사는 환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존재를 인식하는 행위인 '알아봐줌(noticing)'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알아봐줌(noticing)'에는 상대방의 특성, 직위, 위치를 인정하고 관심, 원하는 것을 파악하며 외모 변화와 요구에 반응하고 집중적인 시선을 주며 가까이 친절하게 접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과 간호사는 대상자의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어떤 행위를 그와 함께 하는 '동참함(participating)'을 행하여 환자와 공동의 목표를 같이 달성하고 함께 이뤄야 합니다.

정신 재활 간호의 목표는 회복입니다. 정신 재활이란 정신과적 증상과 기능 회복을 위한 사회복귀입니다. 장기간 정신질환의 보유로 인한 만성화, 음성화된 증상의 퇴행을 예방하는 것이며 입원 환자의 퇴원 준비와 삶의 질을 향상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정신 재활은 급성기 증상이 안정되고 재활이 필요한 환자, 만성화된 정신과적 증상이 있으나 재활 동기부여가 필요한 환자, 사회 복귀로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에게 회복을 목표로 간호를 수행합니다.

다음으로 정신과 간호사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자의 가까이에서 간호를 수행하는 정신과 간호사의 장점으로는 업무 부담감이 적다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심야 근무(night)를 하지 않아도 되고 승진이 빠르며 해외 연수 기회가 많고 지역사회와 협업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이해력도 높아지고 성장하며 역량이 강화됩니다. 그리

고 정신보건간호사 2급 혹은 중독간호사 1급을 수련할 수 있는 기회도 열려있습니다. 특히 마음사랑병원의 강점으로는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여 공익을 위한다는 것, 태움 없는 분위기, 직원의 역량 강화, 정신 의료 수련기관을 통한 의료 인력 양상 등이 있습니다.

마음사랑병원에서 간호사의 역할은 일반 간호사의 역할에 더하여 병동 실무 스태프, 서비스 코디네이터,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평가, 알코올 상담사, 인지 행동 치료 등을 수행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 간호사가 많이 분포되어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정신건강 정책 비전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정신과에서 일하는 근무자들은 인식 개선 사업을 시행합니다. 정신과 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정신과 클리닉을 찾는 사람들을 향한 따가운 시선 같은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일을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마음사랑병원은 전라북도 지역에서 유일하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보건의료 기관으로 공공성 강화, 적정진료 및 의료서비스 제공, 건강안전망 기능 수행,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수행합니다. 공공보건의료 사업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24시간 정신건강 상담, 정신질환자 가족 교육, 정신 재활 프로그램 지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및 장학금 지원, 자살지도자 치료비 지원 사업, 지역사회 정신건강 교육 등이 있습니다. 특히 '전주시 융합형 통합 돌봄 노인·정신질환자 선도 사업' 협력, '완주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생명사랑분과 자살 예방사업' 추진, '정신건강 고위험군 코로나19 물품지원 사업'을 운영하여 2020년에는 공공보건의료 심의 결과 95.4점으로 최우수 등급으로 판정받았습니다.

이번 특강을 통해 환자의 가장 가까이에서 환자의 목소리를 듣고 간호를 제공하며 환자와 함께 회복을 위해 협력하는 정신과 간호사가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영향이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라는 특정한 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어 유익한 시

간이었습시다.

지역사회 연계 및 체계적인 통합재활시스템



-김승하 기자-

👉 전문가 특강

<예수병원 함선희 간호국장>

예수병원의 설립 목적은 국민 건강 및 복리에 기여하기 위하여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료 사업 및 전도 사업을 위함입니다. 미션은 예수님의 사랑과 전인 치유로 인류를 영과 육의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비전은 사랑의 전통 첨단기술로 세계 최고의 선교병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혈관 촬영 장비 '아주리온', 3테슬라 MRI, 지멘스 384 멀티슬라이스 CT, 전복 최초 고압 산소치료기 2대를 새로 도입함으로써 환자를 위한 진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들이 가능한 깨끗한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예수병원의 간호국 인력으로 (2021.9.14 기준) 간호사 556명, 간호조무사 66명, 일반직 보조인력 30명, 지원인력 28명으로 총 인력 6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년 간호국 표어는 환자 존중, 마음 공감, 행복한 간호입니다.

신규 간호사 교육은 채용예정자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고, 채용되고 입사하기 전에 이론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환자의 마음을 공감하기 위한 교육으로 환자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임상에 들어가기 전 자신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기술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 평가는 평가의 목적보다는 병상에 가서 환자 간호를 수행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핵심 술기 15개 항목을 가지고 표준에 따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간호사는 전문 의료인으로서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국가고시에 합격하고 면허증을 받게 되면 그동안 배웠던 간호학 책들을 멀리 두고 쳐다보지 않습니다. 병원에 입사하고 부서가 배정되면 학생 시절에 배웠던 성인간호, 모성간호와 같은 책들을 한 번씩 펼쳐보면 임상에 들어가서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임상에서의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간호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근거에 기반한 간호를 수행하여야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문적인 지식에 더해서 환자를 이해하고 공감해 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환자를 공허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좋은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능숙한 수기술, 긍정적 사고, 원활한 의사소통, 상황 판단력, 이미지 관리: 복장, 용모, 태도, 체력: 건강관리, 열정과 정신력이 요구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인지하고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라. 변화는 기회이다. 내가 변해야만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함선희 예수병원 간호국장님의 특강을 정리합니다.

-최정우 기자-

‘따로 또 같이’의 의미

바이러스와 함께 살다

2020년 1월부터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현재까지 불편한 동반자

로서 함께 삶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타국과 더불어 현재 ‘따로 또 같이’의 의미를 기반에 두고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이행하며 바이러스와 공생하고 있습니다. ‘따로 또 같이’의 의미는 코로나 19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따로’와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의 ‘또 같이’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하지만, 긴 시간 바이러스는 잠잠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거리두기 장기화, 피로 쌓이고 자영업자 인내는 한계 넘어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 불가피”라는 숙제와 함께 정부는 방역수칙을 완화해 지난 12월 18일 00시를 기점으로 약 2주간 위드 코로나를 처음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위드 코로나 이전 확진자 수에 몇 배를 더한 확진자를 낳는 불상사를 발생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방역 수칙단계는 강화되어 전 지역을 상대로 4단계 운영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21세기 장기화되고 있는 이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지 점점 의문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 답답함 속에 야외 활동을 찾아 생활하는 사람들로 인해 ‘이동량 증가 = 코로나 장기화’라는 비례적인 관계가 새롭게 성립된 것 같습니다.

대부분 국민이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지금 접종률은 높아도 체계적인 방역은 꼭 필요한데요. 전문가와 관료가 함께 참여하여 장기 계획을 갖춘 로드맵을 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가까이에 있습니다. 길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피로감은 상승하고, 자영업자의 인내도 한계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따라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일이기에 우리는 현재보다 더욱이 효율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국민의 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민우 기자-

학생회 인터뷰

<재정부-최정우>

Q. 학생회에 지원하게 된 이유와 그중 재정부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A. 대학교에 들어와서 보다 더 의미있는 활동들을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활발한 성격은 아니었기에 걱정도 되었었지만 그때가 아니면 기회가 찾아오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에 학생회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재정부를 지원한 이유는 평소에도 스스로 돈관리 하는 것을 좋아했고, 친구들 혹은 가족들과 여행을 가더라도 자주 총무와 같은 일들을 도맡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었어서 재정부에 지원했었습니다.

Q.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좋았던 점과 힘들었던 점을 말씀해주세요.

A.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좋은 관계들을 많이 형성 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좋은 점 같습니다. 1학년때 부터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다른 학생들과 말을 섞어볼 기회가 거의 없어서 앞으로 친구 한명도 없이 대학교 생활을 이어가나게 될까봐 매우 불안했었지만 학생회라는 그룹에 속해 활동을 이어나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되었고 지금까지 좋은 방향으로 이어져올 수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점은 재정부로써 영수증 정리를 맡아서 해야하는데, 수업들이 비대면이 되면서 SNS를 이용해 상품을 전달하는 빈도수가 늘어나면서 처리해야될 영수증의 갯수가 배로 늘어나 그것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들을 소비해야 했기에 그 부분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기부-김민주>

Q. 코로나로 인해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하였는데 어떠신가요?

A. 학생회이다보니 대면으로 진행되는 활동들이 많은데 다 제약이 되어 하지 못하게 되어 무척이나 아쉬웠습니다. 저희 학번 때 코로나가 터져서 비대면, 대면 활동을 섞어서 했습니다. 나

선식을 1학년 때 참여하게 되었는데 대면으로 진행되다보니 “나선식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저도 3학년 때 실습복을 입고 멋지게 나선식을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몸소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에 대한 대응방침이 나와서 대면으로 진행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줌이나 비대면 회의를 통해서 간편하게 어디에서든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 속에서도 나름의 이점을 찾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Q. 다음 신입생들에게 학생회에 대해 소개해주고 조언한다면 어떠한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A. 학생회는 학생들을 대표하는 집단이기에 책임감 있고 성실한 학생들이 들어오면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학년 때 “학생회 한번 신청해볼까?”하고 지원하게 되었는데 그 때 우연히 생각했던 저의 생각이 지금 생각해보면 절대 후회가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학생회 임원들과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습니다. 간호학과가 선배들과 교류할 수 있는 고리가 별로 없는데 학생회에 들어오게 된다면 선배들과 폭넓은 교류를 할 수 있는 대화의 창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부-윤승우>

Q. 학생회에서는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중 홍보부는 무슨일을 하나요?

A. 홍보부에서는 학교의 각 행사 (개강총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종강총회 등) 의 사진, 동영상 촬영 및 편집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대학교 간호학과 페이스북 홈페이지, 블로그, 인스타그램을 관리하며 교내 행사와 학과 이벤트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카카오톡 익명 Q&A 토크방을 운영 하여 학우분들의 궁금증 등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Q.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의 활동을 다른 방식(ex,영상)으로 대체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A. 기존에 대면으로 진행되었던 행사들이 다 비대면 영상으로 전환되면서, 홍보부에서 맡게되는 일(영상 촬영 및 편집)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이 점이 힘들었지만, 학과 학생회의 임원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 감사와 보람을 느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1학년 과대-김규리>

Q. 처음 간호학과 1학년 과대가 되셨는데 과대 활동을 하면서 약간의 어려움이라도 있었을 것 같은데 말씀해주세요.

A. 우선 초반에는 처음 대학에 입학한거라 저도 아는 게 많이 없었는데 다른 학우분들이 질문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어려움이 있었어요. 또 조교님과 교수님을 상대할 때도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선배님들의 도움을 통해 많이 알아가고 배워나갈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Q. 과대를 하면서 즐거움이나 행복했던 순간을 말씀해주세요.

A. 과대를 하면서 동기들과 더욱 가까워지고 빨리 친해질 수 있어서 재밌었고 행복했어요. 또 조교님과 교수님의 칭찬과 제 이름을 불러주셔서 행복했습니다. 적응하기도 더 수월했고 과대를 한 덕분에 다양한 경험을 한 것 같아 좋았습니다.

<학술부-김현석>

Q. 학생회에 관심이 생긴 이유와 학술부에 지원한 이유는 뭔가요?

A. 저는 고등학교때의 시절을 생각하면 가장 후회되는 것이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은 것입니다. 공부, 수행평가, 입시 등 모두 열심히 하지 않아서 이 부분에서는 이렇다 할 추억이 없습니다. 때문에 학교생활을 잘 참여하고 싶어서 학생회에 관심이 생겼고, 그 중, 고등학교시절에 후회했던 부분을 잘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학술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다음 학생회의 학술부를 위한 계획은 무엇이며 어떻게 행동해 나갈 것입니까?

A. 학술부는 학습 게시판 관리 하기, 학술제 준비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부를 위해서 간호적 이슈, 면접 관련 정보, 병원 정보 제공 등과 같은 일을 하고싶고 이를 위해 매주 일요일 아침 시간을 내어 관련정보를 찾고, 의논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부학회장-마민우>

Q. 학우들이 코로나로 많은 활동을 못했는데 꼭 경험했으면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A. 안녕하세요. 전주대 간호학과 부학회장입니다. 이번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코로나 19로 인해서 지난 2년간 학과 행사 진행이 많이 저조한 모습을 보여서 아쉬웠습니다. 물론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지만요. 내년부터는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지만, 코로나로 인해 학과 선후배 간 또는 동기간에 친밀감 형성이 잘 안되는 것 같아서 방역수칙은 잘 지키되 친밀감 형성을 위한 행사나 동아리 활동 등을 활발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학생회를 이끌어가면서 어려운점 힘든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또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했나요?

A. 저는 2학년이 되어서 학생회를 처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학년 때는 학생회와 관련된 행사에 참여하지 못했기에 학과를 이끌어 나가는데 다소 생소한 부분이 많고 낯설어서 도움도 받고 실수도 했습니다. 더불어, 진행해야 하는 업무 중에 과 잠바 업체와의 불화가 있어 약속된 기간 안에 일 처리를 원활하게 하지 못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고 견뎌내며 극복해야 했기에 절망감도 들고 자책감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학회장이라는 직책을 맡으며 가졌던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하다 보니 어느새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

습니다.

<기획부-박하연>

Q. 코로나로 인해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A. 코로나 상황에서부터 기획부로 활동하게 되어 애초에 많은 활동이 제한되어있었습니다. 그래도 2021년도에 선배들의 나선식의 행사는 진행될 계획이었기에 이 행사라도 제대로 차질없이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하며 기획부의 일인 꽃과 포장을 고르고 주문하여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더 확산이 되어서 나선식이 계속 연기가 되어 이마저도 활동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중간에 중단된 것이 그 당시에 너무 큰 아쉬움이 남았고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 것이 없이 저의 학생회의 활동이 마치게 될까봐 안타까움이 드는 것 같습니다.

Q. 기획부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이며 대체로 무슨 활동을 합니까?

A. 평소 저의 생활 방식이 먼저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여 무슨 일을 할지 계획하고 움직이고, 여행 갈때에도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기 위해 식당과 장소 등을 미리 다 알아보고 가는 성향입니다. 그렇기에 기획부의 활동을 보고 행사장소를 알아보기나 간식 이벤트 메뉴 알아보기 등 활동하기 위해 사전에 알아보아야 할 것들을 더 잘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였고, 다른 부서의 활동에 비해 기획부의 활동이 저의 성향과 맞고 더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여 지원했었습니다.

기획부는 행사 장소 알아보기, OT, LT레크레이션 준비, 간식이벤트 메뉴 알아보기, 나선식 꽃준비하기 등의 활동을 합니다.

-김주은, 이가희 기자-

👉 비대면 봉사를 통한 '행복한 나눔'

Q. 간단한 자기소개 및 봉사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시나요?

A. 20학번 박철웅

안녕하세요. 과방을 사랑하는 20학번 박철웅이라고 합니다. 봉사란 자유로운 의지를 갖추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아무런 대가 없이 도움을 제공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자아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고, 자존감이 오를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뜻깊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Q. 사회봉사 활동 중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A. '컬러링 북 만들기', '달력 만들기', '비누 제작', '캔들 제작', '헌혈' 등과 같은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의미 있는 활동은 컬러링 북 만들기였습니다.

컬러링 북 만들기를 선택한 이유는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 노인 분들에게도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2학년 전공 교과목에서 습득하게 되었고,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고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컬러링 북이 어떤 도움이 될 지 계속해서 고민해가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했기에 저에게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Q. 비대면 봉사를 하면서 에피소드와 어려움은 없었나요?

A.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이 컬러링 북 만들기였다면, 가장 특색 있는 활동은 비누 만들기였습니다.

비누 만들기는 비누 왁스를 녹이고 색소와 향료를 넣고, 틀에 붓고 굳혀서 100~150개의 비누를 만드는 활동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라고 생각하며 엄청난 개수에 당황했지만 같은 학번인 20학번 고인영 학우와 같이 만들다 보니 순식간에 만들 수 있게 되어서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색들과 혼합하며 색이 예쁜 비누를 만들게 되어 서로 감탄하기도 했었고, 비누 장인이 된 듯한 기분에 자존감이 올랐습니다.

Q.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장점과 단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코로나 이전에는 농촌 봉사활동, 해외 봉사활동, 타 기관 봉사활동 등 직접 현장에 가서 하는 활동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학과 학생과 만날 기회를 얻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협동심을 기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대면활동이 불가해져서 아쉽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봉사활동을 통해 오리엔테이션을 장소의 제약 없이 줌을 통해 참여할 수 있고, 비누 및 캔들 만들기처럼 다양한 이색 활동을 체험할 수 있게 된 점이 비대면 봉사활동의 새로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 봉사활동을 하기 전과 후 생각이 어떠셨나요?

A. 봉사활동을 통해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회봉사를 신청할 때는 솔직히 ‘학교에서 귀찮은 활동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가?’ 불만이 있었고, 봉사 자체가 어렵고 딱딱한 개념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총 2회의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제 손길이 닿는다는 점이 굉장히 뿌듯했고, 의외로 어려운 활동들이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이 힐링 되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돕는다는 점이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꼭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기에 저희에게 필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박하연, 김민주 기자-

간호학과 학생들의 온라인 실습 장점 그리고 단점

금방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COVID-19 영향이 아직까지도 이어지면서 학생과 학교 모두 비대면 수업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각자의 몫을

충실히 해내느라 모두가 힘들었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비대면과 대면을 번갈아가며 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은 어떤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한걸음 더 발전했으면 하는지 인터뷰해봤습니다.

1. 비대면 학습으로 얻게 된 성과는?

20학번 김은혜: 비대면 실시간 수업이나 동영상 수업은 채팅으로도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수님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결석률이 매우 낮아지고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어 이해와 복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동 시간을 줄여주어 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제제출 방법이 편리함과 마감기한을 제대로 알고 지킬 수 있어 과제 제출에 많은 긍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1학번 문자은: 대면 수업이 아닌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서 좀 더 자유로운 학습 환경이 형성되었고 이 자유로운 학습 환경은 자칫 잘못하면 학습에 대한 긴장감이 풀릴 수 있어서 학습 환경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 자기주도 학습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비대면 수업 진행 이후 저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은 상당히 발전하였습니다.

2. 비대면 학습의 장점은?

20학번 김은혜: 이론 수업에서 비대면 학습의 장점은 동영상 강의가 마치 1:1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강의 자료가 잘 보였던 점이 좋았습니다. 또 아파서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하거나 복습이나 이해가 더 필요한 경우 나중에 다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또 채팅으로도 질문을 할 수 있어 어렵지 않게 질문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실습에서 비대면 학습의 장점은 프로그램만 있다면 여러번 정확히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대면이 아니었다면 보건통계 과목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개인 노트북에 설치할 수 없었을텐데, 비대면이었기 때문에 학

교측에서 배포를 해주셨고 그래서 더 보건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한 실습 연습을 원할 때 반복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실습 내용을 대면 수업시간에 했다면 놓친 부분들을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혼자 이해했어야 하는데 비대면으로 영상을 올려주시는 경우 교수님께서 직접 수업하신 내용을 다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실습 절차나 방법을 정확히 다시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21학번 문자은: 첫 번째로 시간과 에너지 절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면 수업 같은 경우에는 강의실까지 가는 시간이 소요되는데 반면에 비대면은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강의실까지 가는 시간과 에너지가 절약됩니다.

두 번째로 기간 내에 무한 복습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비대면 수업 중에서도 동영상으로 진행되는 수업은 일정 기간 안에는 수강 횟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무한 복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비대면 학습의 단점은?

20학번 김은혜: 이론 수업에서 비대면 학습의 단점은 시간을 잘 계획하고 활용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일을 계속 미루게 되거나 시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대면 수업이 집중도 잘됩니다. 교수님들도 수업에 대한 저희가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를 더 잘 확인하시고 비대면일 때에 비해 저희의 이해를 위한 설명을 더 신경 써서 해주신다고 느꼈고 저도 대면이 집중과 이해가 잘 된다고 느꼈습니다.

실습 수업에서 비대면 학습의 단점은 직접 연습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실습 과목같은 경우 이론적으로 중요한 점과 절차를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몸에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연습을 많이 하지 못하니까 그런 점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21학번 문자은: 첫 번째로 집중력과 긴장감 저

하입니다. 비대면 수업은 대면 수업보다 혼자 수업을 듣는다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또 대면 수업보다 수업에 몰입도나 긴장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각이나 결석이 더 잦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새내기인 경우 설레는 대학생활의 꿈을 안고 학교를 오는데 비대면 수업 때문에 같은 과 동기의 얼굴과 이름도 모르고 학교 생활을 제대로 즐기지 못 하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4. 향후 바이러스 시대와 함께 하기 위한 비대면 학습의 나아갈 길은?

20학번 김은혜: 앞으로 현재와 같은 바이러스 상황이 지속되어 비대면 수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대면 수업과 최대한 같은 환경 안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학생들이 모두 캡을 키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학교 측에서는 프로그램 오류를 최소화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정확한 쉬는 시간을 제공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학생과 교수님들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단점도 보완하면서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1학번 문자은: 앞으로도 비대면 학습을 해야 한다면 확실한 공부환경 조성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단순한 비대면 평가가 아니라 온.오프라인 평가가 함께 진행되어야 하며 일방향적인 원격수업이 아니라 쌍방향적인 원격 수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학생들이 잘 수강하고 있는지 수시, 상시 평가를 통한 관찰도 함께 진행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지연, 정하늘 기자-

동아리 소개-가온누리, NBW

<NBW>

Q. 간단한 자기소개와 NBW 동아리를 소개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저는 NBW동아리 2학년 대표 배예은입니다. NBW동아리는 Nursing Beyond World의 약자로 '세계로 뻗어 나가는 간호'라는 뜻을 가진 동아리입니다. 저희 동아리의 주요활동은 토익 단어 공부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꾸준히 하기 어려운 토익 단어 공부를 선후배와 같이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효사랑 가족 요양병원으로 봉사를 가는 활동을 목표로 하지만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 봉사활동은 초반 몇 주 동안만 나가게 되었습니다.

효사랑 가족 요양병원에서 무슨 봉사를 하나요?
코로나 전에는 봉사프로그램에 따라 다른 봉사자들과 같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면, 코로나 이후 봉사를 나갔을 때,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 준비, 편지동봉 등 어르신 분들과 직접 대면할 수 없는 활동을 위주로 하게 되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동아리를 통해서 바쁜 학교생활 중에서도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비록 어르신분들과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봉사해 임해 뿌듯하고, 간호사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봉사활동이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코로나 시국의 상태가 더 나아져서 더 많은 봉사활동 참여의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동아리 활동이 꾸준히 지속되어서 더 좋은 동아리로 거듭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온누리>

Q. 간단한 자기소개와 가온누리 동아리를 소개해주세요.

-> 가온누리는 영유아 아이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동아리입니다. 전공지식을 연계한 다양한 봉사활동과 지역사회 영아 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와 개인의 역량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

활동을 계획하지 않고 범위를 넓혀 영아, 초등 학교 고학년과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연령층에 따른 행동 특성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 '간호사'라는 의료 전문인으로서 필요한 역량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21년도에는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해 봉사활동 범위가 많이 위축되어 비대면 봉사를 실시했습니다. 아동의 인권 신장과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아동학대 예방, 학대의 유형 및 특징, 관련 뉴스 기사 등을 수집하여 뉴스카드를 제작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강 문제에 관심을 가져 아이들의 마스크 착용과 접근성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보조적인 도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마스크 스트랩을 선정하였고, 아동의 신체적 특징들을 고려하며 스트랩을 제작하여 전주 영아원에 스트랩 총 40개와 간식을 후원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부원들은 책임감을 지니고 활동에 임하며 아동의 신체적 및 행동적 특징들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마민우 기자-

발행인 : JUNI회장, 편집부장 : 마민우 (22) (신문제작 동아리)

김민주 박하연 최정우 정하늘 이가희 마민우 (20)

김규리 김승하 김주은 서재현 최지연 (21)

편집부장 : 마민우

지도교수 : 조혜경